

女사기범, 윤 前시장 공천에 '영향' 준 것처럼 속였다

당 대표·대통령 언급...지난 10월까지 268회 문자 검찰, 공소시효 맞춰 자금 출처·대가성 집중 조사

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수억대의 돈을 받아 쟁긴 보이스코싱 피의자는 마치 공천에 영향을 준 것처럼 윤장현 전 시장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.
검찰은 이 피의자와 윤 전 시장이 수차례 통화와 수백여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선거 관련된 내용이 오갔음을 포착했다.
10일 광주지검 특수부(부장검사 허

정)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0월
까지 자신을 권 여사라고 사칭한 김모
(49)씨와 윤 전 시장이 통화 총 12차례,
문자메시지 268회를 주고받았다.
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4억5천만원을
받고 취업 청탁을 한 이후에도 지난 10월
까지 권 여사 행세를 계속해왔다.
김씨의 사기극은 지난해 12월21일 윤 전
시장에게 '권양숙입니다. 딸 사업 문제로 5

억원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다. 빌려주면 곧
갚겠다'는 첫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했다.
윤 전 시장은 다음날 김씨와 첫 통화를
했고 김씨는 당시 돈을 빌려 달라며 "제가
힘이 돼드리겠다"라는 말을 했다고
검찰은 전했다.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
월26일 대출을 받아 2억원을 자신의 이
름으로 계좌 이체했고 같은 달 29일 지인
에게 빌린 현금 1억원을 비서에게 지시
해 비서 명의로 보냈다.
이어 올해 1월5일과 1월31일 각각 1억
원과 5천만원을 대출받아 본인 명의로
송금했다. 돈은 모두 김씨 어머니 계좌로
흘러갔으며, 향후 김씨의 자녀들의 차량

구매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.
김씨는 처음에는 조직 관리 자금 등을
거론하며 '이제 경선이 다가오고 있다.
전쟁이 시작될 거다'라는 메시지를 보냈
고 1월 초에는 '어제 당 대표한테도 전화
했으니 시정에 신경 쓰고 힘내라'는 메시
지도 보냈다.
이후 '이용섭 후보와 통화해 만류했다.
알아들은 것 같다'는 내용과 '이제 큰 산
을 넘었다'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공천
에 도움을 준 것처럼 속였다.
검찰은 김씨가 직접 '공천'이라는 단어
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'재선하셔야
죠', '이번 생선 때 대통령을 뵈는데 말했

다'는 등 표현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.
또 김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비슷
한 수법으로 정치인 등 지역 유력인사 4
명에게 범행을 시도했지만 메시지를 받
은 인사들이 사기를 의심하면서 추가 범
행에는 모두 실패했다.
이에 대해 검찰은 실제 도와줄 능력이
있든 없든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기
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김씨
를 사기와 사기미수, 공직선거법 위반 혐
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.
검찰은 윤 전 시장이 애초 공천을 염두
에 두고 돈을 건넸는지를 조사하고 있다.
앞서 윤 전 시장은 지난 4월4일 지방선거

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와 6·13 지방선거
후에 김씨에게 '사정이 어렵다'며 돈을
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
지를 보냈다.
윤 전 시장이 대졸로 마련한 3억5천만
원 이외에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고 밝힌
1억원의 출처도 조사 중이다. 만약 이 돈
이 이자를 적합하게 지급하지 않고 무상
대여한 돈이거나 정치 활동에 관련된 자
금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.
검찰은 6·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
가 오는 13일까지인 만큼 선거법 관련 수
사에 집중하고, 직권남용·업무방해 혐의
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. /오승기기자



'사랑의 선물 주머니' 제작 산타모자를 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(회장 박홍식) 여성봉사특별지원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북구 매곡동 지사에서 연말을 맞아 조손가족과 독거노인,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300여 세대에 전달할 '사랑의 선물 주머니'를 포장·제작하고 있다. 1년 동안 매월 틈틈이 수건으로 제작한 주머니에 핸드드림과 햄, 미역, 참치캔, 양말 등 생필품을 담은 이 선물은 자원봉사자들이 결연을 맺고 있는 취약계층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. /김영권기자

女사기범 '4억5천만원' 개인 용도로 사용 승용차·자녀 집 구매 등에 써...정치권 유입 정황은 없어

윤장현 전 광주지사가 권양숙 여사 사
칭 사기범 김모(49)씨에게 건넨 4억5천
만원의 출처와 함께 그 사용처에도 관심
이 쏠리고 있다. 검찰은 현재까지 김씨
가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돈
을 썼으며 정치권에 흘러간 정황은 없는
것으로 보고 있다.
10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윤
전 시장에게 5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,
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
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4억5천만원
을 받았다.
받은 돈의 액수가 큰 데다 김씨가 올
해 지방선거 등 여러 정치인 선거 캠프
에서 운동원으로 활동했던 만큼 정치권
에 이 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

도 했다.
김씨는 이 돈을 자신의 아들과 딸 명
의 계좌로 다시 이체해 고가의 승용차 2
대를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
진술했다. 검찰은 실제 차량 구매 내역
과 자금 흐름을 살펴본 결과 김씨의 진
술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
또 비슷한 시기 결혼한 자녀의 집을
구하는 데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.
통상 사기 피해금은 피해를 본 개인이
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.
그러나 김씨와 윤 전 시장이 각각 공
직선거법상 금품수수, 기부행위에 관한
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 돈은
범죄 수익으로 인정돼 환수 대상이 된
다. /오승기기자

승용차 훔쳐 드라이브 중학생 입건 5층서 노끈 잡고 내려오다 추락사 광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곳 적발

차 주인이 시동을 걸어놓은 승용차를
물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.
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후
6시께 광주역 인근 도로에 정차된 마티
즈 승용차를 훔친 혐의(절도 등)로 중학
생 김모(15)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
일 밝혔다. 무면허인 김 군은 훔친 승용
차를 물고 합평까지 달리면서 차 안에
있던 신용카드를 휘발유 3만5천원 어치
를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.
조사결과, 김 군은 차 안에 귀중품이
남아있는지 뒤져보다가 시동이 걸려있
는 승용차를 물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
다. 경찰은 김군이 훔친 승용차를 회수
해 주인에게 돌려줬다. /최환준기자

30대 남성이 가느다란 노끈을 붙잡고
건물에서 내려오다 추락해 숨졌다.
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
8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오
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추
락해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, 경
찰에 신고했다.
오피스텔 주변 CCTV에는 전날 오후
11시17분께 A씨가 건물 1층 주차장으
로 추락하는 장면 일부가 찍혔다.
경찰은 A씨가 노끈을 붙잡고 건물에서
내려오다 끈을 놓쳐 추락한 것으로
추정하고 있다. 경찰은 사인이 추락사로
다살 혐의가 없어 사건을 내사 종결할
방침이다. /최환준기자

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
난 10월부터 2개월간 환경오염물질 배
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, 30개 사
업장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
했다고 10일 밝혔다. 이중 11개 사업장
은 시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조치했다.
A업체 등 7개 카센터는 도심에서 대
기오염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에 오염
물질을 배출하는 미신고 언더코팅 시설
을 설치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. B폐기
물처리업체는 관할 자치구에서 허가받
은 폐기물 보관량보다 초과해 폐기물과
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

보관하다 적발됐다.
C업체 등은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이
에 부착된 덕트·후드를 훼손 방지한 채
운영하거나 운영 일지 기록, 자가 측정
이행, 각종 변경신고 이행 등을 위반했
다. D골재제취업체는 지난 4월 폐수배
출시설 사용금지 명령 행정처분을 받았
으나 이를 어기고 시설을 운영 중 야간
에 인근 배수로로 폐수를 무단방류했다.
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"겨울철
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성물질을 배출
하는 사업장과 도심 주거지역 인근 소규모
대기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
오염 행위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
다"고 말했다. /김대기기자

노점상 금목걸이 낚아채 도주

광주 한 전통시장에서 시장상인이 고
개를 숙인 틈을 타 금목걸이를 낚아채
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.
광주 북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금목
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(절도)로 윤
모(51)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.
윤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50분께
북구 한 전통시장에서 A(60)씨가 착용

한 4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훔쳐
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. 조사결과 윤
씨는 과일을 살 것처럼 속여 시장 상인
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.
윤씨는 상인이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
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금목걸이를
잡아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. 킥서
비스 배달원인 윤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
리려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범행에 나
섰다. /최환준기자

"산책왔다, 신발 갖고 가지요"

○...반려견을 데리고
중학교 내부를 산책하
던 중 신발장에 있던
20대들이 특수절도
혐의로 경찰서행.
○...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
(20)씨와 B(20)씨는 지난 10월8일 오후

4시48분께 서구 한 중학교 1층 신발장
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보관중인 학
생들의 신발 3켤레(37만원 상당)를 절
취한 혐의.
○...경찰 관계자는 "범행 당시 교내에
데리고 들어온 반려견에 대한 탐문수사
와 CCTV 분석으로 이들을 검거했다"
며 "산책만 해야지, 범죄를 일으켜서야
되겠다"며 호통. /문철현기자

60플라워
Flower

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

전국전지역6만배송 (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)
Tel. 010-9984-0151 농협 박배성 302-0316-649511

부동산경매 기초부터 전문가까지 완성

법학박사 장윤환

- 경매전문 "법무법인 로법" 법무실장
- 조선대 평생교육원 '부동산경매과정' 전담교수
-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강사
- 호남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
- 전남 교육연수원 "재산관리와 생활법률" 강사

※부동산경매 더 이상 실전강의는 없다※

- 부동산경매 사고방지를 위한 관련법률(판례)
- 부동산 신종사기 대처법과 함정물건 특수분석

※수강후에도 동호회가입 지속적인 정보교류※

경매 기본이론과 사례별 권리분석 및 실무강의

과정	부동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마스터과정	
시간	매주 화요일	주간) 15:30~17:30
		야간) 19:00~21:00
수강료	8주 : 120,000원	
개강	2018. 12. 18. 화요일	
접수	2018. 11. 12. - 2018. 12. 15. 까지	
접수처	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(http://www.chosun.ac.kr/lifelong)	
대상	1. 부동산에 관심은 있으나 자신이 없는 분 2. 부동산 관련 법률용어조차 전혀 모르는 분 3. 기본적인 상식만으로 경매에 중사하고 계산 분 4. 경매전문가로서 더 깊은 권리분석을 원하신 분 5. 노후대책 및 업종변경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	

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
수강신청 062)230-7700~2 (인터넷신청)